

영적 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기독교 영성을 기반으로

심정연*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영성을 바탕으로 한 영적탄력성(Spiritual Resilience)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영적탄력성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문항을 도출한 후,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에 확인된 영적탄력성의 내적(지적, 정서적, 의지적) 역량과 외적(신앙공동체) 역량, 그리고 그 역량을 구축하는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와 성경적 관점의 고통에 관한 이해를 기반으로 문헌 검토와 개방형 질문 분석을 통해 최종 49개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49문항을 기반으로 평행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이 도출되었다. 그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3요인 모델과 4요인 모델을 분석하여 3요인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적탄력성과 영적안녕감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통해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영적탄력성 척도를 기반으로 하는 성경적 상담에서의 임상적 적용점과, 연구의 한계점, 향후 가능한 연구들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영적탄력성 척도, 기독교 영성, 영적역량, 척도 타당화, 성경적 상담

* 숭실사이버대학교 크리스천 리더십학과 강사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Grant Number 2018S1A5B5A07072674).

I. 여는 글

하나님과의 단절감, 삶의 무의미, 영적 자원들의 결핍으로 정의되는 영적 고통은 의료 및 정신건강 분야에서 정신병리의 중요한 핵심 역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정신병리인 우울이나 불안, PTSD를 겪는 사람들과 더불어 신체적 질병인 암 환자들에게도 주요 현상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영적 차원의 고통인 영적 고통(spiritual distress)은 심리적 고통보다 심연에 있는 고통이다. 실제 경험적 연구들에서 암 환자와 다양한 정신과 환자들이 갈등,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고통 뿐만 아니라 무의미함, 절망감,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감에서 오는 영적 고통을 호소한다(Berg, 2011; Delgado-Guay, Chisholm et al., 2016; Delgado-Guay, Hui et al., 2011; Mako, Galek, & Poppito, 2006). 기독교 신앙에서도 개인의 고통에서 영적 고통을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해 왔다(Lloyd-Jones, 1998).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영적 고통과 정신병리와의 연관성을 연구해 왔지만,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에 필요한 역량을 연구하는데는 미흡했다. 기존의 대표적인 회복 역량으로 주목받았던 회복탄력성은 심리적 고통에서의 회복만 다루었기에, 영적 고통을 다루는데는 부족했다. 또한 영적 고통에의 회복력인 영적탄력성을 다루었지만(Shim, 2021) 이론적인 연구로서 개념과 구성요소를 다뤘기에,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영적탄력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을 도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Shim(2021)은 영적탄력성을 개인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역량인 내적 역량과 개인이 속해있는 신앙공동체 역량인 외적역량으로 설명했다. 동시에 영적탄력성이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와 고통에 관한 성경적 이해를 근원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영적 고통으로부터의 회복 역량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선행연구(Shim, 2021)의 이론적 바탕 위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경험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영적 탄력성의 문항들을 도출하고, 척도로 개발하여 타당화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역량은 개인의 지식, 기술, 태도를 포괄하는 안정적이고 통합된 능력으로서(competence) 직무 수행이나 다른 삶의 영역에서의 성취와 관련된 지식, 기술, 능력, 특성 또는 동기를 포함한다(McClelland, 1973).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영적 탄력성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형성되는 영적 역량(spiritual competence)이다. 기독교 신앙 기반의 영적 탄력성은 성화 과정에서 성도의 성장의 진단 지표가 될 수 있다(Hoekema, 1986). 또한 영적탄력성은 개인의 내적인 지적, 정서적, 의지적 능력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교인들이 영적 고통을 겪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공동체

의 역량도 포함한다(Shim, 2021). 성도가 경험하는 기독교 영성은 교리가 삶에 적용되는 신앙적 경험이기(McGrath, 1999), 본 연구는 선행연구(Shim, 2021)에서 도출되었던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와 성경적 관점의 고통에 대한 교리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내적, 외적 영적탄력성을 질적자료 분석을 통해 구체적 문항으로 도출하여,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영적 고통의 회복력인 영적탄력성의 중요성과 기존 연구들의 한계

영적 고통은 최근 정신병리의 핵심 역동으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이는 영적 고통이 다양한 정신병리인, 우울, 분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등에서 발견되며, 암 환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Berg, 2011; Caldeira et al., 2017; Delgado-Guay, Chisholm et al., 2016; Delgado-Guay, Hui et al., 2011; Mako, Galek, & Poppito, 2006; Miranda et al., 2020; Neimeyer & Burke, 2017; Velosa, Caldeira, & Capelas, 2017). 영적 고통(spiritual distress)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감과 소외감을 특징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감정(Durà-Vilà & Dein, 2009; Lloyd-Jones, 1998; Shim, 2021)으로, 용서, 희망, 평안 등의 영적 자원의 결핍(Brown et al., 2006; Duff, 1994; NANDA International)을 동반한다. 성경적 관점에서 영적 고통은 모든 고통의 근원적 고통이다(Lloyd-Jones, 1998; Shim, 2021; 시 13, 22, 25, 74, 83). 이렇게 영적 고통이 정신병리의 주요 역동인 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영적 고통으로부터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기존의 회복탄력성 연구는 심리적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Coutu, 2002),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력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삶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경험할 때, 자신의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능력이다(Kaplan, Turner, Norman, & Stillson, 1996). 개인은 위기와 고통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인내심, 의미 있는 신념 체계, 책임감, 높은 자존감, 문제 해결 능력 등의 공통적인 역

량을 지닌다(Coutu, 2002). 그러나 이러한 능력들은 심리적 회복에만 집중되어 있어, 하나님과의 단절, 다른 영적 자원의 결핍, 그리고 삶의 의미의 상실을 포함하는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 능력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기존의 영성 측정 척도는 영적 회복에 필요한 역량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 척도들은 일반적으로 영적 역량을 다루기 보다는 특정 시점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영적 경험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적 안녕감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는 한 개인이 특정 시점에서 느끼는 영적 안녕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만족도와 삶의 의미 경험 정도로 측정한다(Paloutzian & Ellison, 1982). 정신병리 연구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상 영적 경험 척도(Daily Spiritual Experience Scale; DSES) 또한 특정 시점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 등의 경험을 측정한다(Underwood & Teresi, 2002; Shim & Kim, 2018).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되는 종교적 대처 전략을 평가하는 종교적 대처 척도(RCOPE, Pargament et al., 2000) 역시 영적 고통에서 회복하기 위한 통합된 역량을 고려하는데 미흡하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영적 탄력성의 개념을 언급했으나,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력을 독립적으로 언급하기 보다, 심리적 회복탄력성의 일부로만 고려한 한계가 있다(Manning, 2014). 특히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영적탄력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삶의 의미 상실, 영적 자원의 결핍과 같은 영적 고통의 회복을 고려해야 하기에, 기존의 회복탄력성을 넘어서는 영적탄력성만의 독특한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Shim, 2021).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영적 탄력성을 탐구하는데 미흡했다. Manning(2014)의 연구는 일반인과 종교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적 특성을 반영한 영적 회복 요소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Worthington(2016) 역시 영적탄력성의 개념을 언급하였으나, 용서와 같은 부분적인 능력에만 집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영적탄력성을 고찰한 Shim(2021)의 이론을 기반으로 영적 탄력성의 경험적 자료를 탐색하고 분석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척도를 개발하려고 한다.

2. 기독교 영성에 기반한 회복력으로서의 영적탄력성

기독교 영성에 기반한 영적 탄력성은 내적으로는 회복을 위한 지적, 정서적, 의지적

역량과, 외적으로는 신앙 공동체의 역량으로 구성된다(Shim, 2021). 이러한 역량들은 하나님의 이미지와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다(Shim, 2021). 첫째, 영적 탄력성은 성경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총체적 지식인 성경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다(Calvin, 2008; Shim, 2016, 2021). 왜냐하면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에 필수적인 역량이기 때문이다(Keller, 2013).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가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들을 다스리고 돌보신다(시 36, 46, 86; 벰전 5:7).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시며 (Lloyd-Jones, 1998; Piper, 2011; 시 23), 강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신다(심정연, 2016; 시 119; 롬 5:3-4; 벰전 5:10).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시고(롬 8:1-2),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신다(고후 1:3-4). 특히 십자가의 복음에서 이해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하나님 이미지는 영적 고통 속에서 성도들의 영적 탄력성의 기초가 되어왔다(심정연, 2019; Keller, 2013; Shim, 2019; 2021).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복음은 모든 인간의 고통을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고, 무엇보다도 그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알게 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Calvin, 2008; Welch, 1994a, b).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는 지식은 영적 고통에서 회복하는 중요한 역량의 근간이 된다(Keller, 2013; Shim, 2021; 롬 8:35-39).

두 번째로 필요한 지식은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이다(Keller, 2013; Shim, 2021). 영적 고통은 타락한 세상에서 모든 고통의 핵심이며 근원이다 (Lloyd-Jones, 1998).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며, 예수님이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고, 고통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되며, 영적 고통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Keller, 2013; Piper, 2011; Shim, 2021; 계 7:16-17, 21:4-5).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대처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신자들의 고통을 아신다. 하나님과의 단절감에서 오는 영적 고통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핵심적인 고통이었기 때문이었다(Calvin, 2008; Shim, 2021; 막 15:34; 마 27:46).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단절의 고난을 당하시고 인내하셨으며, 그분의 단절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얻는다. 이러한 중요한 두 축의 지식들을 바탕으로, 영적 탄력성의 역량을 다음과 같은 내적, 외적 영역에서 형성되어 간다(Shim, 2021).

3. 영적탄력성의 주요 역량

기독교 영성에 기반한 영적 탄력성은 성경적 하나님의 이미지와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지식의 축을 바탕으로, 내적으로는 지적, 정서적, 의지적 역량과 외적으로는 신앙 공동체의 역량으로 구성된다(Shim, 2021). 먼저, 지적 측면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고통의 의미를 알고, 생각하며, 기억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와 인간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영적 탄력성의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 능력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새로워져, 세계관과 사고, 그리고 신념 체계가 변하고 개발되는 지적역량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Keller, 2013; Kuypers, 2008).

Lloyd-Jones(1998) 또한 성경 교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강조하면서, 회복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기반으로 감정과 의지가 회복된다고 강조하였다. 성경의 시편 저자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선포함으로써 영적 고통에서 회복되었다(시 13, 22, 25, 74, 83).

두 번째 역량은 영적 고통을 직면하고 수용하는 정서적 역량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 안에서 형성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위로, 기쁨의 능력을 의미한다. 고통 속에서 성도들이 느끼는 소망과 위로,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열매로서 영적 회복의 중요한 능력이다(시 27:5, 13-14, 28:7-9, 30:5, 32:11; 갈 5:22-23). 자신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단절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느낌, 공허함과 허무함을 인식하고 수용한 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량이다(Durà-Vilà & Dein, 2009; 시 10, 11, 28).

세 번째 역량은 영적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려는 의지적 역량이다. 이는 영적 회복에 필수적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 읽기 (Durà-Vilà & Dein, 2009), 기도, 예배 참석, 용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력을 포함한다(Keller, 2013; Worthington et al., 2016).

영적 탄력성의 외적역량은 복음 안에서 영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며 양육하는 신앙공동체의 능력이다(Shim, 2021). 성도들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며, 서로 의지하고 각자의 연약함을 책임진다(안경승, 2010; Stott, 2010; 고전 12:25-26; 엡 4:15-16). 신앙공동체는 영적 지지와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 신앙적 대화와 기도를 통해 서로가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며, 그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도록 돕는다 (McGrath, 2013; Shim, 2021; Welch, 2013). 이는 성도의 중요한 외적 차원으로서의 영적탄력성의 역량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내적인 지적, 정서적, 의지적 역량과 신앙공동체의 외적역량으로 구성된 이론을 기반으로 영적 탄력성 척도를 개발하며 검증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1) 영적 탄력성 척도 문항 선별

척도 항목은 전문가의 심층 문헌 검토 및 회복 기록지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영적 고통을 회복한 9명의 기독교인들은 영적 고통 회복에 대한 개방형 설문을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영적 탄력성에 대한 이론 문헌들과 성찰 자료의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역량의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항목들은 성경적 하나님의 이미지와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기반한 지적, 정서적, 의지적 역량, 그리고 공동체의 역량의 문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RCOPE(Pargament et al., 2000)의 “이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고통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려는지를/성장하게 하시려는지를 보려고 노력했다”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문항들은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여 최종 49문항으로 선정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5=항상 그렇다, 4=대체로 그렇다, 3=보통이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49개의 영적 탄력성 문항에 대한 최소 점수는 49점, 최대 점수는 245점이다. 하위 척도의 요인 1은 40점에서 200점, 요인 2는 5점에서 25점, 요인 3은 4점에서 20점 사이로 범위가 설정되었다.

2) 탐색적 요인분석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설문에 동의한 만 20세 이상의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 110명(남성 52명, 47.3%; 여성 58명, 52.7%)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서울 및 경기도의 여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온라인 설문

은 구글 설문 링크를 통해 수집되었고, 오프라인에서는 종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엑셀 파일로 코딩되고 수집되었다. 참여자의 연령대는 20세에서 72세까지로 (평균: 28.39, 표준편차: 10.45) 분포되어 있었다.

(2) 분석방법

영적 탄력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은 SPSS for Windows(버전 21.0)를 사용하여 110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요인 분석의 적합성은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이용하여 검증되었으며, 평행 분석을 통해 적절한 요인 수를 확인하였다(Franklin, Gibson, Robertson, Pohlmann, & Fralish, 1995). 평행 분석 결과에 따른 요인 수를 기반으로 주축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고, 요인 회전 방법으로는 Direct Oblimin 방법을 사용하였다.

3) 확인적 요인분석

(1) 자료 수집

확인적 요인 분석은 경기도와 서울의 교회를 다니는 203명의 새로운 표본(남성: 71명, 35%; 여성: 132명, 65%)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참가자의 나이는 19세에서 82세까지 분포하며 평균 나이(M)는 40.11, 표준편차(SD)는 13.31이었다.

(2) 분석방법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선택된 49개의 문항을 확인적 요인 분석에 사용했다. AMOS 21.0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고, 3요인 모델과 4요인 모델의 적합성을 비교했다. 모델의 적합성은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간명성을 측정하는 절대 지수인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를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모델의 적합성은 CFI, TLI가 0.90 이상, RMSEA가 .08 이하일 때 확인된다. 3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를 통해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적 안녕감 척도와 의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측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문항 묶음을 실시하였다. 문항 묶음을 위해 문항을 1개 요인으로 고정한 후, 요인 분석을 통해 문항을 나열하고 요인의 부하량의 균형을 고려하여 문항들을 그룹화했다(Little et al., 2013; Lee & Kim, 2016).

(3) 영적 안녕감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개인의 영적 안녕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종교적 안녕의 수직적 차원과 실존적 안녕의 수평적 차원으로 구성된다(Paloutzian & Ellison, 1982). 이 6점

리커트형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의 점수로 구성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영적 안녕감이 높다(박지아, 2003). 본 연구는 Paloutzian & Ellison(1982)의 영적 안녕 척도의 한국어판을 타당화한 박지아(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박지아(2003)의 연구에서 총 영적 안녕감의 Cronbach's α 는 .91, 종교적 안녕은 .90, 실존적 안녕은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영적안녕감의 Cronbach's α 는 .95, 종교적 안녕감은 .92, 실존적 안녕감은 .91이었다.

5. 연구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1) 평행분석

KMO 및 Bartlett 구형성 분석 결과를 통해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KMO = 0.88; Bartlett $p = .000$). KMO가 0.7 이상이고 Bartlett 값이 0.05 미만일 때 요인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로 확인된다. 평행 분석은 전체 데이터의 고유값(Eigenvalues)과 100개의 무작위로 추출된 데이터의 평균 고유값, 그리고 100개의 무작위로 추출된 데이터 중 95%의 고유값을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하도록 돕는다(Fabrigar & Wegener, 2011). 본 연구 데이터에서 3요인 raw data 고유값은 2.557로 95% 고유값인 1.995보다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4요인 raw data 고유값이 1.784인데 이는 95% 고유값인 1.844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4요인보다는 3요인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탐색적 요인분석

위의 3요인을 고정한 상태에서 Direct Oblimin을 사용하여 주축 요인 분석을 실행하였다. 요인 1은 40개의 문항으로, 요인 2는 5개의 문항으로, 요인 3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1). 요인 1에는 내적인 지적, 정서적, 의지적 영적 탄력성 요소가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성경 속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기억은 지적 역량에 포함되었다. 지적 역량의 문항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일하시며, 통치하시고, 성도를 위로하시며, 인도하시고, 고통 속에서 긍휼하신 분이라는 성경 속 하나님의 성품과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지적 역량에는 "18.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기억했다."와 같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이해도 확인되었다. 요인 1에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는 정서적 능력도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32.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는 느낌이 실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33.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거나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이 느껴질 때 느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했다."가 포함되었다. 또한, "13. 예수님은 내가 겪는 고통스런 감정을 다 공감하신다고 생각했다."와 같이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아심을 신뢰하는 문항도 확인되었다. "34.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길 기대했다"와 같이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에 대한 기대도 포함되었다. 요인 1의 의지적 능력에는 "39. 하나님께 기도했다", "43. 성경말씀을 읽었다", "44. 하나님께 감사했다", "45.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순종하는 의지의 역량이 포함되었다.

요인 2에는 성도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고 격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46. 나는 나를 위해 지지해주는 신앙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했다", "49. 신앙 공동체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왔다.", "47. 신앙공동체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등이 확인되었다.

요인 3에는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인식이 나타났다. 문항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고통이 없는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타락으로 인해 고통이 발생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1. 하나님은 태초에 고통이 없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했다.", "2. 세상은 타락 이후 고통을 겪고 있음을 기억했다.", "17.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으셨음을 기억했다." 등이 포함되었다.

(3) 최종 문항의 신뢰도

최종 문항의 1, 2, 3 요인은 모두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40개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1의 Cronbach α 는 .979, 5개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2의 Cronbach α 는 .903, 4개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3의 Cronbach α 는 .781이었다.

〈표 1〉 요인부하량

문항	요인		
	1요인	2요인	3요인
9	.941	.009	-.087
8	.926	-.048	-.011
36	.909	.044	-.154
35	.897	.058	-.139
5	.874	-.017	-.024
21	.860	-.008	.081
14	.851	-.025	-.138

15	.845	-.214	.226
6	.831	-.044	-.007
3	.820	.053	-.111
37	.810	.031	-.222
10	.809	-.032	.174
12	.804	.074	.027
4	.804	-.049	.061
39	.804	.104	-.265
11	.769	-.065	.073
23	.746	.074	-.147
13	.745	-.073	.153
34	.743	.021	-.060
24	.734	-.065	.327
20	.723	-.062	.236
38	.719	.050	-.127
22	.710	.121	-.209
30	.682	.191	.092
7	.671	-.085	.296
16	.625	-.152	.176
42	.613	.307	.015
18	.612	-.069	.466
26	.595	.075	.376
19	.569	.016	.381
45	.561	.344	-.065
44	.534	.373	.093
27	.521	.327	.159
40	.507	.148	-.052
28	.476	.295	.239
29	.466	.204	.441
32	.446	.241	.072
43	.441	.364	-.021
31	.359	.293	.184
33	.349	-.027	.139
49	.075	.854	-.019
48	.085	.809	-.069
47	-.059	.741	.221
46	-.089	.686	.294
41	.302	.575	-.205
1	.061	.164	.630
25	.446	.047	.575
17	.320	.078	.537
2	-.152	.306	.533

〈표 2〉 최종문항

구분	문항
3	1. 하나님은 태초에 고통이 없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했다
3	2. 세상은 타락 이후 고통을 겪고 있음을 기억했다
1	3.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했다.
1	4.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1	5.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했다.
1	6.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했다.
1	7.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통치하고 계심을 기억했다.
1	8.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했다.
1	9.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기억했다.
1	10.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심을 생각했다.
1	11.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했다.
1	12. 하나님은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다.
1	13. 예수님은 내가 겪는 고통스런 감정을 다 공감하신다고 생각했다.
1	14. 하나님이 고통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기대했다.
1	15.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했다.
1	16.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임을 기억했다.
3	17.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으셨음을 기억했다.
1	18.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기억했다.
1	19.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사해주셨음을 기억했다.
1	20.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나를 안타깝게/궁핍하게 보고계심을 생각했다
1	21.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중에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했다.
1	22. 이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1	23. 고통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지를 성장하게 하시는지를 보려고 노력했다.
1	24.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아들 딸)임을 기억했다.

- 3 25.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대가로 산 자녀임을 기억했다.
- 1 26. 내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예수님이 본이 되심을 기억했다.
- 1 27. 삶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였다.
- 1 28. 삶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였다.
- 1 29.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다.
- 1 30.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능성과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대했다
- 1 31.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느낌이 실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 1 32.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는 느낌이 실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 1 33.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거나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이 느껴질때 느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했다
- 1 34.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길 기대했다.
- 1 35.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했다.
- 1 36.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기억했다.
- 1 37. 나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을 기대했다.
- 1 38.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마음을 기도로 말씀드렸다
- 1 39. 하나님께 기도했다.
- 1 40.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 2 41. 교회 그룹모임 소그룹 모임 지지그룹 기도모임 성경공부 등 에 참석 했다
(소그룹모임, 지지그룹, 기도모임, 성경공부 등)
- 1 42. 하나님을 찬양했다.
- 1 43. 성경 말씀을 읽었다.
- 1 44. 하나님께 감사했다.
- 1 45.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
- 2 46. 나는 나를 위해 지지해주는 신앙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했다
- 2 47. 신앙공동체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 2 48. 신앙 공동체는 나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도왔다
- 2 49. 신앙 공동체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왔다

2) 확인적 요인분석

(1) 3요인 모델과 4요인 모델의 비교

3요인과 4요인의 적합성을 비교했다(표 3). 연구 모델은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확인된 3요인 모델이며, 4요인 모델은 대체 모델로 선정되었다. 요인 분석을 통해 4요인 모델이 개발되었다(요인 1: 문항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8, 21, 24; 요인 2: 문항 14, 20, 22, 23, 26, 27, 28, 29, 30, 34, 35, 36, 37, 38, 39, 42, 43, 44, 45; 요인 3: 문항 1, 2, 7, 19, 25, 31, 32, 33; 요인 4: 문항 40, 41, 46, 47, 48, 49). 모델의 적합성은 CFI, TLI가 0.90 이상, RMSEA가 .08 미만일 때 확인된다(Hair et al., 2010). 모델 적합성의 분석 및 비교 결과, CFI와 TLI 모두 .9 이상이였지만, 3요인 모델의 값이 더 높았다(3요인 모델: CFI = 0.995, TLI = .991; 4요인 모델: CFI = 0.962, TLI = .928) 또한 3요인 모델의 RMSEA만 .08 미만이었다(3요인 모델: RMSEA=0.058; 4요인 모델: RMSEA=0.118) (표 3). 두 모델의 AIC 값이 2 이상일 경우 서로 별개의 모델로 보기 때문에 (Jöreskog, 1993), 두 모델은 서로 구별되는 모델이다(3요인 모델: AIC=52.527; 4요인 모델: AIC=182.741)(표 3). 마지막으로 AIC 값이 낮을수록 적합한 모델이므로(Jöreskog, 1993) AIC 값이 가장 낮은 52.527인 3요인 모델이 최적의 모델로 선택되었다.

(2) 검사-재검사 신뢰도

확인적 요인분석 설문 조사 3주 후 총 19명을 대상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재검사를 치른 응답자 중 성실하게 응답한 19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영적 탄력성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값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r = .649, p < .01$).

(3) 수렴타당도

영적탄력성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영적안녕감과 상관을 분석하였다. 영적탄력성 척도는 영적안녕감이 영적 자원으로서 개인의 긍정적인 영적 만족을 평가하기 때문에 높은 수렴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적탄력성과 영적안녕감은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영적안녕감 $r = 0.60, p < .01$; 종교적 안녕감 $r = 0.61, p < .01$; 실존적 안녕감 $r = .53, p < .01$).

〈표 3〉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모형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CFI	TLI	RMSEA	AIC
3요인 모형 (연구모형)	18.527	11	.995	.991	.058	52.527
4요인 모형 (대체모형)	110.741	29	.962	.928	.118	182.741

Ⅲ. 닫는 글

본 연구에서 영적탄력성 척도는 문헌검토와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내적 역량과 영적 고통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신앙 공동체의 외적 역량을 포함하는 49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110명을 대상으로 한 평행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3요인 49문항으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지적, 정서적, 의지적 역량에 관한 40개의 문항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요인은 성도들을 지원하는 공동체의 역량에 관한 5개의 문항,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보여주는 4개의 문항으로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문항들로 203명의 새로운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3요인 모델과 4요인 모델을 비교한 결과, CFI와 TLI가 모두 높고 적절한 RMSEA수준을 지닌 3요인 모델이 4요인 모델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주 후에 검사-재검사를 실시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였고, 영적 안녕감과 높은 상관관계로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 정서적, 의지적 역량이 영적 회복탄력성의 요인 1로 확인되었다. 첫째 영적탄력성의 지적역량은 기독교 영성의 핵심으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McGrath, 1999). 이를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분이 하실 약속을 기대하게 된다. 특히 성경의 하나님 이미지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느낄 때 고통 가운데서 회복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량이었다. 영적탄력성의 정서적 역량은 영적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의 단절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iper, 2011). 또한 영적 고통과 관련된 단절감, 거절, 공허함, 무의미함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영적탄력성의 능력으로 확인되었다(Durà-Vilà & Dein, 2009; 시 10, 11, 28). 동시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낄 소망하는 역량이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시 13, 22, 25, 74, 83). 회복에서의 의지적 역량의 중요성은 Pargament, Koenig, & Perez(2000)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성경을 읽으며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역량을 포함했다.

본 연구에서 요인 3은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로 확인되었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성도의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곡되게 경험되는 성도가 느끼는 거절감이나 단절감, 무의미함과 절망과 같은 영적 고통에 대비하게 돕고, 불가피한 미래의 고통에 대해 준비시킨다(Keller, 2013). 이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적 세계관 내에서 개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 질병, 소외 등에 의해 발생하는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인식은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이 불가피한 것이며, 고통에 놀라지 않도록 준비시킬 뿐 아니라 고통을 수용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역량이 확인되었다. 신앙 공동체의 역량은 신자가 영적 고통에서 회복되는데 중요한 역량으로서 확인되었다. 이는 이전 연구들에서 강조된 영적 능력들과 동일하다(Pargament et al., 2000; Keller, 2013).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신앙 공동체의 역량이 중요한 개인의 영적 회복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Dawn, 1989; Stott, 2010, Welch, 2013; 롬 12:5).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성경적 상담의 임상과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임상에서 첫째, 영적탄력성 척도는 체계적인 성경적 상담을 위한 영적 진단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내담자의 영적 역량을 탐색하고, 어떤 영역의 결핍이 현재의 하나님과의 단절감으로 인한 영적 고통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현재 내담자의 주 호소 문제와 연결되는지 진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 과정에서 지적, 정서적, 의지적 역량과 외적 역량을 통합한 영적탄력성을 측정하여 사례 개념화와 상담 전략을 수립하고 상담 효과를 확인하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성경적 상담이 지닌 독특한 사례개념화, 특히 복음 기반의 신앙적 자원과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입하도록 도울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 이미지와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교리가 영적 탄력성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성경적 상담과 기독교 교육현장에서는 교리 중심의 교육을 통해 영적역량을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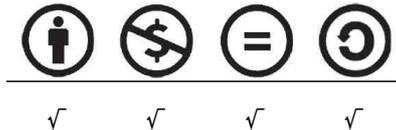
성경적 상담의 연구의 측면에서는 본 척도를 활용하여 정신병리와 영적탄력성과의 연관성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하나의 척도의 개발은 특정 현상과 개념을 구체화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성경적 상담의 연구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영적탄력성과 정신병리와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 연구, 회복 과정에서의 영적 탄력성 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영적탄력성 기반의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등 다양한 연구로 확장하여 성경적 상담학에서 영적탄력성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상담의 회복과정 안에서의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동양 문화권의 기독교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계가 있다. 추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탄력성 구조를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 투고일: 2024년 09월 30일

•논문 수정일: 2024년 11월 02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1월 08일



【참고문헌】

- 박지아 (2003). 적응 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 애착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경승 (2010). 중독과 신앙공동체. **복음과 상담**, 15, 105-133. <http://dx.doi.org/10.17841/jocag.2010.15..105>
- 심정연 (2016). Rizzuto 의 하나님 이미지 이론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고찰과 적용 방안 연구-하나님 이미지 변화 상담 모델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복음과 상담**, 24(2), 183-219. <http://dx.doi.org/10.17841/jocag.2016.24.2.183>.
- 심정연 (2017). 기독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영성의 역동성: 한국판 단축형 하나님 이미지 척도를 기반으로.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정연 (2019). 기독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회복을 위한 기독교 12 단계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신앙과 학문**, 24(2), 5-32. <http://dx.doi.org/10.30806/fs.24.2.201907.5>
- Berg, G.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distress, PTSD and depression in Vietnam combat veterans. *Journal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65(1), 1-11. <https://doi.org/10.1177/154230501106500106>
- Brown, A., Whitney, S., & Duffy, J. (2006). The physician's role in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spiritual distress at the end of life. *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4, 81-86. <https://doi.org/10.1017/S1478951506060093>
- Caldeira, S., Timmins, F., de Carvalho, E. C., & Vieira, M. (2017).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distress in cancer patients undergoing chemotherapy: Utilizing the SWBQ as component of holistic nursing diagnosi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6(4), 1489- 1502. <https://doi.org/10.1007/s10943-017-0390-4>
- Calvin, J. (2008).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Kissimmee, FL: Signalman Publishing.
- Coutu, D. (2002). How resilience works. *Harvard Business Review*, 80(5), 46-55.
- Dawn. M. J. (1989). *Keeping the sabbath wholly: Ceasing, resting,*

- embracing, feasting*.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
- Delgado-Guay, M. O., Chisholm, G., Williams, J., Frisbee-Hume, S., Ferguson, A. O., & Bruera, E. (2016). Frequency, intensity, and correlates of spiritual pain in advanced cancer patients assessed in a supportive/palliative care clinic. *Palliative & Supportive Care, 14*(4), 341-348. <https://doi.org/10.1017/s147895151500108x>
- Delgado-Guay, M. O., Hui, D., Parsons, H. A., Govan, K., De la Cruz, M., Thorney, S., & Bruera, E.(2011). Spirituality, religiosity, and spiritual pain in advanced cancer patients.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41*(6), 986-994. <https://doi.org/10.1016/j.jpainsymman.2010.09.017>
- Durà-Vilà, G., & Dein, S. (2009). The dark night of the soul: Spiritual distress and its psychiatric implications. *Mental Health, Religion and Culture, 12*(6), 543-559. <https://doi.org/10.1080/13674670902858800>
- Duff, V. (1994). Spiritual distress: Deciding to care. *Journal of Christian Nursing, 11*(1), 29- 31. <https://doi.org/10.1097/00005217-199411010-00014>
- Fabrigar, L. R. & Wegener, D. T. (201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UK: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klin, S. B., Gibson, D. J., Robertson, P. A., Pohlmann, J. T., & Fralish, J. S. (1995). Parallel analysis: A method for determining significant principal components. *Journal of Vegetation Science, 6*(1), 99-106. <https://doi.org/10.2307/3236261>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s.). NY: Pearson.
- Hoekema, A.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Jöreskog, K. G. (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294-316).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Kaplan, C. P., Turner, S., Norman, E., & Stillson, K. (1996). Promoting

- resilience strategies: A modified consultation model. *Children & Schools*, 18(3), 158-168. <https://doi.org/10.1093/cs/18.3.158>
- Keller, T. (2013).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Kindle Ed. UK: Hodder & Stoughton.
- Koenig, H. G. (2009). Research on religion, spirituality, and mental health: A review.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4(5), 283-291. <https://doi.org/10.1177/070674370905400502>
- Kuyper, A. (2008). *Lectures on Calvinism*. MA: Hendrickson Publishers.
- Lee, J., & Kim, S. (2016). Item parceling: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 principle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2), 327-353.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https://doi.org/10.1037/a0033266>
- Lloyd-Jones, D. M. (1998). *Spiritual depression: Its causes and cures*. Grand Rapids, MI: Zondervan.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https://doi.org/10.1111/1467-8624.00164>
- Mako, C., Galek, K., & Poppito, S. R. (2006). Spiritual pain among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 in palliative care.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9(5), 1106-1113. <https://doi.org/10.1089/jpm.2006.9.1106>
- Manning, L. K. (2014). Enduring as lived experience: exploring the essence of spiritual resilience for women in late life.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3(2), 352-362. <https://doi.org/10.1007/s10943-012-9633-6>
- McClelland, D. C.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https://doi.org/10.1037/h0034092>
- McGrath, A. E. (2013). *Christian spirituality: An introduction*. MA: Blackwell Publishing.

- McGrath, A. E. (1999). *The journey: A pilgrim in the lands of the spirit*. UK: Hodder & Stoughton.
- Miranda, T. P. S., Caldeira, S., de Oliveira, H. F., Iunes, D. H., Nogueira, D. A., Chaves, E. D. C. L., & de Carvalho, E. C. (2020). Intercessory prayer on spiritual distress, spiritual coping, anxiety, depression and salivary amylase in breast cancer patients during radiotherapy: Randomized clinical trial.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9*(1), 365-380. <https://doi.org/10.1007/s10943-019-00827-5>
- Neimeyer, R. A., & Burke, L. A. (2017). Spiritual distress and depression in bereavement: A meaning-oriented contribution.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35*(1), 38-59. <https://doi.org/10.1007/s10942-017-0262-6>
- North American Nursing Diagnosis Association. (2007). *NANDA Nursing Diagnoses*. WI: North American Nursing Diagnosis Association.
- Packer, J. I. (2011). *Knowing God*. Kindle Ed. UK: Hodder & Stoughton.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224-236). New York: John Wiley & Sons.
- Pargament, K. I., Koenig, H. G., & Perez, L. M. (2000). The many methods of religious coping: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RCOP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4), 519-543. [https://doi.org/10.1002/\(sici\)1097-4679\(200004\)56:4<519::aid-jclp6>3.3.co;2-t](https://doi.org/10.1002/(sici)1097-4679(200004)56:4<519::aid-jclp6>3.3.co;2-t)
- Piper, J. (2011). *Don't waste your cancer*. Wheaton, IL: Crossway.
- Shim, J. Y., & Kim, J. (2018). Development of the Korean Christian version of the Daily Spiritual Experience Scale (KCDSSE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21*(9-10), 910-925. <https://doi.org/10.1080/13674676.2018.1495185>
- Shim, J. Y. (2019). Christian spirituality and smart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A comparison of high-risk, potential-risk, and normal control group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8*(4), 1272-1285.

- <https://doi.org/10.1007/s10943-018-00751-0>.
- Shim, J. Y. (2021). A study on spiritual resilience from the Bible perspective: Focusing on recovery from spiritual suffering. **신학과 실천**, 75, 297-321. <http://dx.doi.org/10.14387/jkspth.2021.75.297>.
- Stott, J. (2010). *The radical disciple: Some neglected aspects of our calling*. Downers Grove, IL: IVP.
- Underwood, L. G., & Teresi, J. A. (2002). The daily spiritual experience scale: Development, theoretical description, reliabilit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preliminary construct validity using health-related data.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4(1), 22-33. https://doi.org/10.1207/s15324796abm2401_04
- Velosa, T., Caldeira, S., & Capelas, M. L. (2017). Depression and spiritual distress in adult palliative patients: A cross-sectional study. *Religions*, 8(8), 156. <https://doi.org/10.3390/rel8080156>
- Welch, E. T. (1994a). Exalting pain? Ignoring pain? What do we do with suffering?.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2(3), 4-19.
- Welch, E. T. (1994b). Who are we? Needs, longings, and the image of God in man.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3(1), 25-38.
- Welch, E. T. (2013). **중독의 성경적 이해** (김준 역, *Addictions, a banquet in the grave: Finding hope in the power of the gospel, resources for changing lives*).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 Worthington Jr., E. L., Griffin, B. J., Toussaint, L. L., Nonterah, C. W., Utsey, S. O., & Garthe, R. C. (2016). Forgiveness as a catalyst for psychological, physical, and spiritual resilience in disasters and cris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44(2), 152-165. <https://doi.org/10.1177/009164711604400206>.

[Abstract]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Spiritual Resilience Scale: Based on Christian Spirituality

Shim, Jung 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a Spiritual Resilience Scale based on Christian spirituality. To achieve this, items were derived by identifying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spiritual resil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ristian faith, followed by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cal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Based on the internal(cognitive, emotional, volitional) competencies and external(faith community) competencies of spiritual resilience previously identified, as well as an understanding of the image of the biblical God and the biblical perspective on suffering, a total of 49 items were deriv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open-ended questions.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parallel analysis conducted on the 49 items revealed a three-factor structure. Subsequently,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o compare a three-factor and four-factor model, with the three-factor model being found to be the most appropriate. Convergent validity was confirmed through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and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was confirmed through test-retest reliability. Clinical implications for biblical counseling using the Spiritual Resilience Scal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oposed.

Key words: Spiritual Resilience Scale (SRS), Christian spirituality, spiritual competence, validation, biblical counseling

-
- * Soongsil Cyber University, Department of Christian Leadership / Lecturer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Number 2018S1A5B5A07072674).